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경 제 혁 신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10. 29. (토)	담당부서	동북아통상과
담당과장	조수정 과장 (044-203-5690)	담 당 자	박근형 사무관(044-203-5692)

제11회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하기로 -
- 3국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 -
- 디지털싱글마켓, 공급사슬 연계, 제4국 공동진출 등 3국 공동협력사업 추진키로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29.(토)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1회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세코우 히로시게(世耕 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및 가오 후청(高 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일중 3국간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동 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 회의 재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협상 가속화 등 역내 및 다자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공급사슬 연계, △올림픽 경제협력, △제4국 공동진출, △지방교류 확대 등 3국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재개된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이며, 내년에도 중국에서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여,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하기로 했다.

○ 특히,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약 20%를 담당하는 3국의 통상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시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하고, 보호무역주의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 아울러, 역내 경제통합, 글로벌 이슈 대응, 3국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 및 무역자유화를 촉진키로 했다.

□ 구체적으로 3국은 동북아 역내 통합 진전과,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키로 하고,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동북아 역내 통합)** 3국 장관은 진행중인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동방자협정(RCEP) 협상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하였으며, 양 협정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3국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 아울러, 새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채널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과 감축(Roll-back) 약속을 적극 이행해나기로 했다.

○ **(다자채널 협력강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EM) 경제통상장관회의의 2017년 한국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 아울러, 각 국이 제안한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3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 **(디지털 싱글 마켓)** 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디지털 싱글 마켓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

○ **(액화천연가스(LNG))** 3국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합의

○ **(공급사슬 연계)** 지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3국 공동연구 결과를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 협력 추진을 위한 "대화채널"을 설립키로 합의

○ **(올림픽 관련 경제 협력)** 2018년 평창,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 올림픽 등 3국이 연이어 개최되는 기회를 활용하여 문화, 경제와 스포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함

○ **(제4국 공동진출)** 3국의 장점을 결합하여 제4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

○ **(지방교류 확대)**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를 포함한 3국 지방경제간 협력 강화

□ 3국 장관은 차기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하고,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을 실무 차원에서 점검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조수정 과장(☎ 044-203-5690) 또는 박근형 사무관(☎ 044-203-56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동 기자회견 발언문**

먼저, 오늘 제11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환대해 주신
세코우 히로시게 대신님과
일본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가오 후청 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지난해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어렵사리 재개되었는데,
올해 일본에서 1년 만에 다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모멘텀은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간 교역·투자 강화 방안,
다자 및 지역 차원의 공조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3국간 협력 의제에 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회의 성과를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3국간 협력의 제도적 틀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3국 장관은
진행중인 3국간 FTA와 RCEP 협상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양 협정이 유연하면서도
가급적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계경제와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3국이 참여하는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동북아 경제통합은 물론,
세계경제 회복과 무역자유화 촉진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분위기에 3국모두 우려를 표시하고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WTO, G20, APEC 등 다자 채널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stand-still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더 나아가, 보호무역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WTO 환경상품협정(EGA)의
연내 타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와 유럽 간 역내 교역·투자와
연계성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ASEM 경제통상장관회의가 10년 만에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3국간 경제 협력 분야를 전자상거래, 공급사슬 연계, 제4국 공동진출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3국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싱글 마켓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3국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세계 1위, 4위, 7위를 차지하는
중·일·한 3국이
국제규범 및 표준 제정 과정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전자상거래 분야의 "global rule maker"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3국간 LNG 가스 분야 협력을 통해
3국의 구매력을 하나로 모아 협상력을 키우고,
구매협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사슬 연계, 올림픽 활용 경제·인적교류 협력 강화,
제4국 공동진출 및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11차 경제통상장관회의는
풍성한 성과를 거둔 대단히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회의 합의사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내년 중국에서의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기대하며,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주신 일본측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